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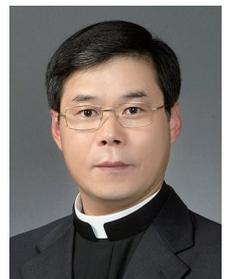
매우 특별한 사순 시기!

1. '코로나19' 유감有感: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개학도 한 달 이상 연기되고, 주일미사를 비롯하여 신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미사와 모임도 중단된,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발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뿐입니다.

2. 특별한 사순 시기: 올해는 재의 수요일 예식도 하지 못한 채, 매우 특별한 사순 시기를 지냈습니다. 비록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까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들의 발길이 끊어진 빈 성당에서 개인적으로 매일미사를 봉헌하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더 깊이 성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 하는 힘든 시간의 연속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사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3.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 이천여 년 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수난의 길과 파스카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도, 또 코로나19가 만연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이 순간도, 예수님의 마음은 그리 편치만은 않으실 듯합니다. 이제 파스카 신비가 절정을 이루는, 일 년 중 가장 장엄한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간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죽음이 소멸되며 저주가 사라지고 악마의 노예살이가 종식되어 그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게 된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평화롭게 하신다."

제발 기나긴 코로나19와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바이러스도 죽음으로 소멸되고, 평화의 하느님께서 이 나라를 또 이 세상을 다시 평온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서 해방된 주님 부활의 큰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유해욱 요아킴 신부 | 가음동 본당 주임



제 1 독 서	이사 50,4-7
화 답 송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 2 독 서	필리 2,6-11
복 음	마태 26,14-27,66

주일 진레

더욱 굳건해진 사랑의 공동체 사파동성당

한일문 하삼바오로



창원과 김해에 걸쳐있는 불모산佛母山 중턱에 본시 성스러운 분들이 머무는 절이라 해서 '성주사聖住寺'라고 불리는 절이 있다. 이 절은 신라 흥덕왕 10년(835년)에 도력으로 왜구를 물리친 무염無染國사를 기리기 위하여 세워졌다는데 창건당시 곰도 도왔다고 해서 흔히 '곰절'이라 불린다. 이 절에서 불음佛音을 알리는 동종銅鐘을 타종할 때면 그 소리가 들리는 지역을 가음可音동이라 하고, 그 밖의 중생들이 사는 지역을 사바세계라 해서 '사바동'이라고 부르다가 '사파동'이 되었다는 야사가 전해오는데 우연하게도 1천 백 년이 훨씬 지난 지금, 중생들이 산다는 사파동에 가음지역에 있는 가음동성당에서 분가된 사파동성당이 있으며 곰절 '성주사'와는 오랫동안 결연을 맺고 있다.

사파동성당의 역사를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1974년 4월, 창원지역이 대규모 중공업 중심의 기계공업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전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기회의 땅인 창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당시 개발중심 지역이었던 창원군 상남면 지역의 유일한 가톨릭 공동체였던 상남공소는 1977년 용지본당으로 승격되었고 안민공소와 창곡공소를 본당 관할로 두면서 이 지역 가톨릭 신앙공동체를 확장하는 불씨가 되었다. 그 후 창원공단조성이 본격화 되면서 용지본당의 신자수가 급격히 늘어나, 가음동성당을 봉헌하게 되었다. 급기야 1989년에는 창원시 인구가 30만으로 늘어나자 장기적 안목에서 아파트 지역인 사파동에 성당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파동성당의 총 공사비는 6억5천만 원으로 당시로서는 꽤나 큰 금액이었지만 모뎀본당이었던 가음동성당을 주축으로 반송, 중동, 양곡성당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성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소식을 접한 자매교구인 오스트리아 그라츠교구가 2억 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했다. 당시 자금이 부족하고 실의에 찬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단비였음을 돌이켜 보면, 그분들이 보여준 그 감사함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드디어 1989년 6월 24일 1,277석 규모로 우리 교구에서 가장 큰 성전이 봉헌되었다.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상가와 접해 있어 외관적으로 돋보이지는 않지만, 마당에 들어서면 정면에 있는 대리석으로 조각된 성모자상이 잘 가꾸어진 화단의 꽃들과 함께 우리를 반긴다. 계단을 오르면 본당설립 25주년을 기념하면서 모신 '체레자 요한' 주보성인상도 많은 신자들의 손 기름이 묻어 반짝거리는 왼쪽 발등을 살며시 드러내 보이며 우리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사파四派가 된 아픔속의 성장

역사가 깊은 다른 본당과 비교하면 그렇게 오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설립 32년을 맞이하는 동안 6분의 사제와 13분의 수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은총을 듬뿍 받은 공동체이다. 대희년인 2천년에는 무려 445명이나 세례를 받기도 했다. 소년꾸리아를 포함한 6개 꾸리아, 82개 브레시디움에 820여명이 넘는 레지오 단원이 활동하면서 우리 교구에서 처음으로 본당 단독 꼬미시움을 창단하는 영예를 얻게 되었다, 2007년에는 본당에서 사목한 유영봉 야고보, 이형수 블라시오 두 분의 신부님이 함께 몬시놀로 서임되는 등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 속에 성장하였다.

그러나 도시의 팽창과 함께 신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주일미사만 7대를 봉헌하게 되면서 2005년 1월 15일 본당은 또 다시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사목'이다. 즉, 한 성당을 4곳의 사목지역으로 나누어 흔히 말하는 '한 지붕 네 성당'이라는 특별한 사목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복음사가의 이름을 따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지역으로 지역중심의 공동사목을 실시하였으나 다시 지역단위를 독립된 성당으로 승격시켜 사파동, 신월동, 창원상남동, 토월동성당으로 4개의 본당체제로 바꾸었다. 이를 계기로 신자들과 본당사제 간에 만남의 기회가 많아지고 본당별 신자들의 결속도 돈독해지는 등 사목의 질적인 가치는 높아졌다. 시간이 흐르자, 한 성당 건물 안에서 본당이 다른 4개 본당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함께하면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증폭되었다. 어느덧 하나의 공동체로서 동질감을 확보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더욱 굳건해진 공동체



이렇게 되자 4개 본당신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사목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되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교구장 주교님의 결정에 따라 꼭 10년 만에 다시 하나의 공동체인 '사파동성당'으로 환원되었다. 그 당시 신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호가 "우리는! 하나다!"였다. 어쩌면 10년 동안 각기 다른 본당신자로 마주치면서 서로가 많이 불편하였기에 하나로 되는 것 또한 더욱 절실했을 것이다. 다행히 본시 하나였던 공동체라서 그런지 사파공동체는 빠른 속도로 일치하고 단합되면서 지금은 비 온 뒤의 땅처럼 한때 소원했던 형제애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어 말 그대로 '사파沙巴가 사파四派가 되었다가 다시 사파沙바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체감하게 한다.

이제 사파동성당도 옛날 같지만은 않다. 본당 설립 당시 3,40대의 젊은 청년들은 어느 듯 7,80대가 되어 새삼 세월의 흐름을 절실하게 한다. 청년들의 옥타브 높은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300명이 넘던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제는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축복 속에서 모든 신자들이 더욱 일치하는 '사파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가 성숙된 하느님 백성이 되려는 기도의 공동체, 스스로가 한 형제·자매가 되려는 일치의 공동체, 스스로가 봉사하려고 하는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가 될 것을 확신한다. 앞으로 20년도 채 남지 않은 2039년 6월 설립 50년 주년이 되면, 25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느님께서 주신 축복의 증거물들을 모아 묻은 '타임캡슐'을 기쁜 마음으로 열어 볼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교황님의 사순 피정: “하느님의 친밀한 형제애의 모범인 모세”

김종훈 엠마누엘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매년 교황님과 교황청의 성직자들은 사순 시기에 정기적으로 사순 피정을 갖습니다. 올해에도 교황청 국제 성서 위원회 간사인 예수회의 피에트로 보바티 신부의 지도로 로마 근교 도시 아리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보바티 신부가 선택한 주제는 ‘하느님의 친밀한 형제애의 모범인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감기로 인해 불참하셨지만, 지도 신부에게 당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나의 방에서 신부님의 강론을 들으며, 온전히 동반할 것입니다. 나의 축복을 전하며 신부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교황님의 사순 피정을 같은 마음과 열정으로 동반하며, 사순 시기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이 엄중한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생기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 하느님의 계시를 받음

첫 강론의 주제는 ‘떨기 나무가 타다(탈출 3,2)-탈출기, 마태오 복음, 시편의 기도에서 접하는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 이야기는 ‘하느님의 계시 안에 머무는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모범으로서 초막 안에서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모세와 같이 증거의 예언적 소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불’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번 교황청 피정을 이끄는 이정표적인 성인입니다. 비유적으로 우리는 불타오르는 떨기 나무 앞에선 모세와 함께 신발을 벗고,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얼굴’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당신 외에는 어떤 길도, 방향도, 선택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날 오전: 희망의 여정

둘째 날은 희망의 여정을 떠납니다. 탈출 2,1-10; 마태 1,18-25; 시편 139장이 안내합니다. 이 희망의 여정은 초

막에서 하느님을 만나면서 시작합니다. 모세가 초막에 들어섰을 때, 구름 기둥이 내렸고, 이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표징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근본적으로 예언적 체험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은 ‘침묵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떨기 나무가 불에 타고 있지만, 없어지지 않는 체험을 합니다. 이는 ‘인간 존재가 떨기 나무와 같이 무력하고, 허약하며, 빈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삶을 견디는 힘으로 이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입니다.

‘불’은 어떤 적절하고도 헌신적인 수련을 통해 영혼의 열정을 새롭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향한 새로운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선물에 대한 마음의 진지한 개방을 전제로 합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으랴?”(루카 12,49) 모세가 체험한 ‘불’의 표징은 예수에게서 타오릅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는 사랑의 불입니다. ‘불’은 진정한 기도를 통한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 체험됩니다.

둘째 날 오후: 인생의 전환점인 하느님의 부르심(성소)

하느님의 부르심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라고 부르시고, 하느님의 뜻에 저항하려는 유혹에 맞서도록 하십니다. 부르심의 주제는 ‘하느님의 은총을 거역하는 것과 함께 다루어 집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각자 개별적으로 부르십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전환점이며,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에 응답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남’의 순간으로 즉각 돌아섭니다. 탈출 3,1-12; 마태 16,13-23; 시편 63장이 이 묵상을 도와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생기 있는 삶과 보다 더 유익한 자기 증여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한 섬김의 고귀한 지평을 발견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삶의 혼잡과 부산함 가운데서, 심지어 피로의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의식적이라 할지라도 고귀한 현실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의 상태입니다. 오직 하느님께서만이 그것들을 드러내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계시이지, 인간의 자기 결정은 아닙니다.

타오르는 떨기 나무의 만남으로 돌아가서 보면, 모세는 거룩한 장소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모세의 무지이지만, 성소의 예언적 지평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느님의 계시이지, 결코 명료한 자기 자각이거나 자기 결정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모세는 가장 인격적인 응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모세 스스로 ‘자각과 순명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셋째 날 아침: 하느님의 은총을 거부함

이 무거운 주제를 이끌 성경은 탈출 5,10-23; 마태 12,1-23; 시편 78장입니다. 파라오는 노예살이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는 모세를 방해함으로써 하느님의 부르심에 저항합니다. 여기서 파라오는 “누가 주님인가?”라고 질문합니다. 파라오에게 이 질문의 핵심은 모든 적을 파괴하는 힘의 존재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서는 이방인들과 억압받는 이들, 그리고 학대 받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줄 결정적인 변화를 주심으로써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오만함의 위험

하느님의 첫 번째 적은 당신 ‘은총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오만함은 하느님께 대한 순명을 방해합니다. 자기 결정, 인격적 결정, 자유 의지의 이름으로 위장하여 그런 오만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격려의 사목과 우상에 대한 경고

우상은 신앙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탈출기의 황금 송아지 사화를 주목해 보면, 과거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현대에도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상에 대한 다양한 견

해를 종합해 보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기 보다는 ‘보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열망에 휩싸입니다.

현대 디지털 세계에서도 많은 이들이 우상에 대한 ‘추종자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우상은 종교적 의식주의와 결합되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거나 받아들이는 것 없이, 진정한 기도는 결핍되고, 단지 매우 아름다운 의식으로 치장되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의 유혹에서 사탄을 이겨내셨을 때, 우상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당신의 모범에 따라,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무지의 우상을 극복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넷째 날 아침: 격려의 사목

다섯 번째 묵상 주제는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격려의 사목입니다.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해결책은 다름 아닌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하느님 말씀입니다.

탈출기 14장의 홍해를 건너는 사화와 마태오복음 14장의 물위를 걸으시는 예수의 사화의 공통점을 들여다보면, 백성들이 하느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격려와 위로’의 사목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태오 복음에서 폭풍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물위를 건도록 초대하시고,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께서는 그를 잡아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주님을 위한 찬미의 기도인 시편 124장을 묵상합니다. 이 묵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심에 대한 찬미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분이 아니시라면, 깊은 물에 빠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물은 우리를 삼켜버리지 않고, 유혹의 덫은 부러질 것이며, 우리는 자유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교황님의 사순 피정은 ‘모세가 걸어난 믿음의 길을 예수께서 완성’하시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탈출기와 마태오 복음, 시편에서 보여주는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오늘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생존본능, 깨어 있는 의식

수정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우리의 생존본능은 즉시 그것을 피하도록 자동적으로 움직여 우리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 본능적 기능이 나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란 관계 앞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격, 사람 됨됨이를 좋게 또는 반대로 드러내는 기준이 됩니다.

“당신도 저 갈릴래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생면부지 한 하녀의 이 말에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마태 26, 35)라며 예수님을 향해 뜨거운 사랑 고백을 했던 베드로 사도는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너무나 닮아 있는 저의 심리 상태, 타인의 이익보다는 저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두려워 그 속에 숨어 꼼짝도 못하는 저를 보며,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었을까?’ 다시 성경을 들었습니다.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의 상태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십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예수님 자신의 깨어 있는 의식으로 아버지를 생각하시며 선택하십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을 포기하시는 이 기도가 세 번에 걸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투死鬪를 벌이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어서 당신이 행하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곧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을.

내 안의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고 지나쳤을 때 생존본능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이 명확히 드러난 최근의 부끄러운 체험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직면하면서 예수님처럼 의식적으로 나의 원의를 아버지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난 후 깨어 있는 명료한 의식으로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시도록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포에 맞서 극단적인 상태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신 것은 일상생활에서 늘 그렇게 하셨던 결과 즉 평소 실력이지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어느 한순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는 어느 신부님의 말씀처럼 평소 실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복된 성주간의 은총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